

200자 안내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스와미 사치다난다 지음 / 허철 옮김

인도 출신의 세계적 요가 수행자 사치다난다의 명상록. 특정 종교나 사상을 초월한 삶의 지혜가 잔잔하게 펼쳐진다. “마음의 평화와 행복은 우리가 타고난 권리다”라고 말하는 저자는 “여기 실린 간단한 삶의 지혜를 익혀 모든 불행과 작별했으면 한다”는 희망을 피력하고 있다.

동국출판사 / A5신 / 208면 / 3500원

새로운 발견과 창조

이영주 지음

‘피(血)의 원리를 통한 영육일체론’에 근거하여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성찰함으로써 불로불사의 ‘영생학’을 탐구해본 책. 진정한 도는 禪房의 면벽수도나 나무 밑에서 가부좌를 틀고 있는 것으로는 결코 완성되지 않으며, 일상생활의 긴박한 일조일초의 상황에서 마음을 올바르게 갖고자 노력할 때 비로소 얻어진다고 설교한다.

해인 / A5신 / 478면 / 4300원

中國革命論

모택동 외 지음 / 박광중 편역

1926년과 1938년 당시 민족통일전선을 천명하고 앞으로의 중국혁명의 과제와 전망을 제시한 스탈린과 모택동의 당대회 보고문을 같이 묶었다. 중국혁명운동의 방향을 제시한 중요문건으로 평가되는 글들로, 국공합작을 비롯한 당대의 중국정세가 공산주의진영 내부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범우사 / B6 / 164면 / 1000원

그대 괴로움이 다시 나를 울릴 지라도

시몬느 베이유 외 지음 / 김동수 편역

시몬느 베이유, 루이제 린저, 미우라 아야코, 시몬느 보바르, 펠 벅 등 여류작가 5명의 에세이선집. 「포옹으로 오는 그대 행복」 「천사여 옷을 벗어다오」 「영원과 사랑과 모순의

꽃술」 등 여성적 감수성으로 채색된 ‘사랑의 에세이’를 모아 작가별로 묶어냈다.

오상 / A5신 / 320면 / 3500원

반물질의 세계

히로세 다치시게 지음 / 박일수 옮김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현대물리학의 반물질의 세계를 해설한 책. 물질의 궁극像과 우주의 기원, 즉 極微세계와 대우주와의 관련 아래 반물질의 실재와 의미를 탐색했다. 얼핏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반물질의 세계를 실험이야기를 섞어가며 흥미롭게 풀어냈다.

전과과학사 / B6 / 200면 / 2500원

기드 모파상 研究

曹禹鉉 외 지음

「비계덩어리」 「여자의 일생」 등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자연주의작가 모파상의 문학세계를 분석한 연구서. 모파상 소설에 나타난 시간과 공간의 구조를 비롯해, 그의 ‘私生兒의식’, 性的 전개양상 등을 다룬 논문들과 함께 부록으로 모파상의 단편소설 13편을 붙여 원문으로 수록했다.

서린출판사 / A5신 / 290면 / 5000원

계곡여행

안경호 지음

산과 물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계곡여행 안내서. 산악인인 저자가 전국의 이름난 산을 타며 보아두었던 계곡들 중 대표적인 곳 100여개를 골라 소개했다. 해당 계곡의 전경 사진과 약도를 일일이 덧붙였고, 교통 및 숙식편, 그리고 승용차 여행시의 코스를 소개했다. 권말엔 계곡여행시 알아두어야 할 상식을 정리해 부록으로 실었다.

샘터 / B6 / 264면 / 3000원

얼굴의 미학

윤명중 지음

알기 쉽게 풀어쓴 ‘人相學’ 에세이. 저자의 인상학 이론에 합치되는 전세계 저명인사들의 사진을 풍부하게 곁들여 인상학에 내재된 발상의 비밀을 밝히는 데 치중했다. 코, 이마, 눈, 눈썹, 귀, 턱, 입, 이, 턱, 손 등 인체의 각 부분에서 읽을 수 있는 운명의 신비를 해설했다.

동학사 / A5신 / 254면 / 3800원

문학이론 학습자료

북경대학 중문과 엮음

마르크스-레닌주의 문학이론의 원론과 기초가 되는 명제들을 사전식으로 정리한 자료집. ‘세계관과 창작’ ‘혁명적 낭만주의’ ‘문학의 전형’ ‘계급성’ 등의 소항목 아래 각각의 항목

과 관련된 마르크스, 레닌, 고리끼, 스탈린, 플레하노프, 모택동, 노신, 광말약 등의 논술을 한데 모았다. 전2권.

친구 / A5신 / 각 278, 328면 / 각 4000, 4500원

發展理論論

崔武鍾 외 지음

마르크스가 보는 사회변동과 마르크스주의가 보는 도시사회학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분석, 검토함으로써 자본주의 발전도상국의 사회적 통합의 방법론을 모색해 본 논문집. 정치, 사회, 경제, 행정의 4부문에 걸쳐 사회발전론과 관련된 사회주의 이념형을 비롯한 논문 5편을 수록했다.

동아대출판부 / B6 / 226면 / 2500원

인간, 자유, 만남 그리고 철학

서배식 지음

현실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의 의미를 철학적 사색으로 점검해본 에세이집. ‘코메디와 정치’ ‘축제와 합창’ ‘웃음과 울음’ ‘인간, 시간, 존재’ ‘삶 의식과 죽음 의식’ 등 5부로 나눈 가운데, 사소한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철학적 조명을 가한 글 70여편을 묶었다. 저자는 청주대 철학과 교수.

신원문화사 / A5신 / 330면 / 3500원

문제의 교사

A. S. 니일 지음 / 김정환 옮김

국내 T.V에서도 소개된 바 있는 실험학교 ‘서머힐’의 창시자 니일의 저서. 그의 「문제의 어린이」 「문제의 부모」 「문제의 가정」과 함께 4부작을 이루는 책이다. 어린이의 놀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에 기거이 동참할 수 없는 교사는 참된 교사가 될 수 없다는, 전통적 교사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담겨 있다.

양서원 / A5신 / 192면 / 3000원

사랑을 위하여

하인리히 겐코프 엮음 / 오순희 옮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그들의 가족과 친지, 연인들과 나눴던 사랑과 우정, 동지적 연대감을 그들 자신의 서간문을 통해 읽을 수 있도록 편집된 책. 칼 마르크스와 에니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메리 벤즈 등 동일한 이상과 목표로 결합된 부부, 혹은 연인들의 진정한 동반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한마당 / A5신 / 176면 / 2300원

舊約時代의 社會風習

R. 드보 지음 / 이양구·김성규 옮김

고대 이스라엘의 생활풍속을 다룬 구약학계의 명저. 聖所, 제사장제도, 희생제물, 안식일 등 성서신학의 주요문제들을 폭넓게 분석하여

구약을 읽을 때 부닥치는 의문점들을 쉽게 풀어준다. 풍부한 자료를 간명하게 정리한 필치가 돋보인다. 抄譯本.

기독교정문사 / A5신 / 404면 / 7000원

금남선생 표해록

崔溥 지음 / 崔基泓 옮김

조선조 성종시대의 문신 錦南 崔溥의 「漂海錄」 원역본. 중국으로의 使行을 그린 ‘燕行錄’ 류와는 달리, 배가 난파당해 표류하다 중국의 강남지방에 기착하고, 다시 거기서부터 육로로 조선에 돌아오기까지의 기구한 경험을 기록하고 있어 이채롭다. 역사학 및 국문학계에서는 이미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 책이다.

교양사 / A5신 / 288면 / 3800원

당신이 나를 영원케 하셨으니

타골 지음 / 黃松文 편역

인도문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의 시와 에세이, 서간문 등을 한데 모은 책. 인간의 영혼을 흔들며 깨우는 둔중한 종소리 같은 은은한 울림, 자유의 날개를 펴고 하늘로 비상하는 정신의 높이, 자연과의 조화를 노래하는 동양적 친화력 등이 잘 드러나 있다.

글벗사 / A5신 / 282면 / 3000원

피꼬리를 위한 명상

安成浩 지음

문예지 「詩와 意識」을 통해 등단한 시인의 첫 수필집. 시골풍경이나 옛 장터를 향한 어린 날의 향수, 이제는 점차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생활주변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이야기들을 서정적 문체에 담은 글 50여편을 4부로 나누어 묶었다.

창학 / A5신 / 260면 / 3000원

세통의 이력서

헤르만 헤세 지음 / 편집부 옮김

헤세의 「유리알유희」 마지막 후를 이루는 ‘요제프 크네히트의 유고’를 번역한 책. 주인공 크네히트가 자신의 가공의 생애를 써 나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헤세 특유의 동양적 유희사상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얼핏 보기엔 공상소설 같지만, 작가 자신이 살고 싶은 인생을 그린 ‘가공의 자서전’으로도 읽힌다.

시간과공간사 / A5신 / 196면 / 3000원

야한 여자하곤 못살아

이호광 지음

시인이며 칼럼니스트인 저자의 포트집. 「주간여성」에 연재됐던 것을 묶었다. ‘우리 시대의 돈키호테’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농촌출신 노총각 맹두철이란 주인공의 신부형팅작전을

기동 줄거리로 하는 연작형태를 취하고 있다. 권말의 「꽁트로 쓴 백담사 일기」, 「가상청문회」가 이색적이다.

백양출판사 / A5신 / 240면 / 3000원

불교철학개론

方立天 지음 / 劉英姬 옮김

유물론적 시각과 관점에서 쓰여진 불교철학개론서로 중국 人民大學출판부에서 간행됐던 책. 불교에 대한 전통적 해석에서 벗어나 불교역시 철저한 역사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불교철학에 갖는 변증법과 유물론의 요소들을 발굴해내고 있다.

민족사 / A5신 / 286면 / 4500원

계간지

겨레문학 (89년 가을 창간호)

[나의 문단 데뷔시절1] 김정환

[특집]상황과 문학1 ▲민중항쟁의 소설화 (박남훈 / 하창수 / 이강은 / 남승우)

[시]김광규 / 강영환 / 하재봉 / 황인숙 / 김보한 / 이종현 / 성기각 / 김세운 / 김경진 / 김우태

[평론]▲조명희론 (이상원) ▲근대시인의 삶과 시적 대응 (조동구)

[서평]▲계급적 당파성과 문학의 무기화 (임영일) ▲순수와와의 만남과 그 고뇌 (박경수)

[소설]▲모자일화 (백우암) ▲그물 깊은 남자 (이복구) ▲취객 (홍성암) ▲돈아라 엄발 (강철오) ▲어떤 여름날 (성병오)

地平 / A5신 / 248면 / 3000원

외국문학 (89년 가을 · 제20호)

[특집]동독문학 ▲브레히트 이후의 동독드라마 (송동준) ▲동독에서의 서정시 파도 (전영애) ▲브레히트의 후기시 (박설호) ▲동독소설의 큰 흐름 (안삼환) ▲플렌츠도르프의 베르테르 소설 (박상배) ▲과거극복에의 의지 (정서웅) ▲단의성의 신화 (페터 지마, 허창운 옮김)

[논문]▲한국문학에 있어서 제국주의 인식과정 (서경석) ▲복식읽기의 사회사학 (신철하) [시]박두진 / 정현중 / 정호승 / 최영철 / 허의도 / 박서린

[소설]▲자유종 · IV (김수경) ▲알몸과 육성 (최수철) ▲북어요리사 (구광본) ▲찌르레기 파이 (레이먼드 카버, 육은정 옮김)

[오늘의 세계문학]⑥레이먼드 카버 편 열음사 / A5신 / 404면 / 4000원

사상 (89년 가을호)

[특집]현대 공산주의, 어디로 가는가 ▲맑스주의에서 레닌주의로 (양호민) ▲북한은 어디로 (서대숙) ▲중국 사회주의 (서진영)

▲중국의 대외정책 (안병준)

▲소련 사회주의의 이상과 현실 (하용출)

▲일본 공산당의 과거, 현재, 미래 (최상용)

▲동유럽 공산주의의 미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역사의 바람에 선 서구 공산주의 (안병영)

▲혁명과 선거의 변증법 (서병훈)

진리 · 자유 (89년 가을 · 제2호)

[특집 I]자유와 평등의 변증법 ▲휴머니즘에 입각한 유토피아적 비전 (임철규) ▲아메리카 혁명의 꿈과 미국의 현실 (김우창) ▲러시아혁명의 꿈과 소련의 현실 (이인호) ▲'혁명없는 혁명' 스칸디나비아의 꿈과 현실 (안병영)

[특집 II]고등학교 교육과 대학입시 ▲고교교육은 대학의 하청업인가 (이성호 외) ▲대학입시 출제는 이리해야 한다 (남기심 외)

[특별대담]서산 정석해선생을 모시고 (박영식 교수)

[자연과학의 세계]▲컴퓨터의 뇌세포 VLSI의 해부학 (이문기) ▲오존층 파괴에 의한 지구의 위기 (조희구)

[사회비평칼럼]서석태 / 이은해 / 노정선 연세대학교 / B5 / 160면 / 3000원

월간지

다리 (89년 10월호)

[쟁점논단]교원 노동3권 그 보장과 제한의 한계 (신인영)

[지상재판]특위청문회, 누가 어떻게 위증했다 (친금성)

[발굴탐구]월북 · 입북 · 남북 · 재북 문인행적기 (정영진)

[기획특집]한국교육 이대로 좋은가 (문화마당) ▲문학운동과 문인조직 (염무웅)

▲누구를 위한 세중문화회관인가 (노동은) ▲미술작품에 대한 공안당국의 해석방식 (유홍준) 외

[흐름과 밝힘]▲영을 선거결과와 야3당 진로 (한국정치연구회) ▲토지공개념, 토지문제 해결 최선책인가 (한국사회연구소) ▲정부 새 통일방안 현실성 미흡하다 (한겨레 사회연구소)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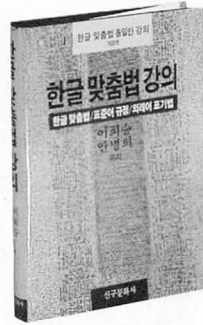
월간다리 / A5신 / 400면 / 3800원



화제의 책

한글 맞춤법 강의

이희승 · 안병희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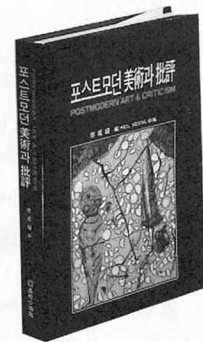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기초로 써져져 해방 직후 출간됐던 「한글 맞춤법 통일안 강의」를, 올봄부터 새로 시행된 문교부 제정 '한글 맞춤법'에

이색출판

포스트모던美術과 批評

徐成綠 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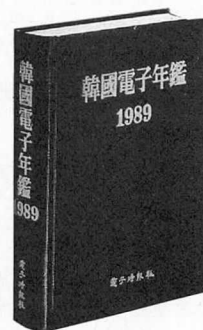


서구사회의 지적 생활에서 가장 치열한 논점을 이루며 20세기 후반의 예술을 특징적으로 규정짓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제반 측면을 분석한 에세이 11편을 譯編했다. '외래문

자료집

韓國電子年鑑 1989

전자시보사 엮음



현대산업의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며 우리 경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자산업의 최신정보와 각종 통계를 집대성

따라 그 달라진 부분을 수정증보한 「한글 맞춤법 강의」가 출간됐다.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 이 책은 특히 맞춤법에 대한 단순한 해설보다는 그 역사적인 배경과 기본원리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둬으로써 문자생활의 올바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풍부한 용례와 요령있는 해설, 잘 정리된 권말의 색인으로 실제 문자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

맞춤법과 관련된 전문학자들의 논저 목록도 세밀하게 조사, 소개했고, 맞춤법 및 표기법과 관련된 신문 · 잡지의 각종 논설과 기사의 목록을 실어 이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한글맞춤법 논쟁사의 일단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신구문화사 / A5신 / 396면 / 8500원

화의 무조건적 추수'나 '문화적 국수주의'를 다같이 지양한 객관적 입장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 이해를 위해 각기 상반된 견해를 취하는 학자들의 글을 편견없이 소개하는데 중점을 둬으로써, 제3세계권의 우리가 포스트모더니즘을 어떻게 수용하고 평가해야 하는지를 암시해주고 있다.

엮은이의 「한국미술비평의 새 기류」를 비롯해 「모더니즘이여 안녕」(김 레빈), 「모더니즘과 그 적들」(힐튼 크레이머), 「모더니즘, 수정주의, 다원주의,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어빙 샌들러), 「표현적 오류」(헬 포스터), 「모더니티, 未完의 프로젝트」(위르겐 하버마스)등을 3부로 나누어 실고 끝에 참고문헌목록을 붙였다. 큰 판형과 300점이 훨씬 넘는 풍부한 원색도판이 돋보인다.

美術公論社 / A4 / 382면 / 65000원

한 89년판 「韓國電子年鑑」이 최근 출간됐다.

'개황'과 '정책', '각론'의 세 부분으로 나온 가운데 제1편 '개황'에서는 국내전자 산업의 발전과정과 현황, 과제와 전망을 살피는 한편, 美 · 日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전자산업에 대해서도 그 동향과 전망을 살폈다.

제2편 '전자공업정책'에서는 전자공업의 수요창출, 기술개발, 통상의교 등에 관한 주요정책들을 개관하고, 제3편 '각론'에서는 산업용기기, 가정용기기 등 전자공업의 부문별 개황과 동향, 발전전략을 다루고 있다.

부록으로는 각종 관련법규의 전문과 함께 국내 전자관련 업체의 현황과 인명록을 정리해 수록하고, 국내 및 국외의 부분으로 나온 전자공업 발전사 연표도 같이 실었다.

전자시보사 / B5 / 946면 / 50000원